

# 해외 Topic



## 오리의 도로산책/Fowl Traffic



〈YONHAP NO-0144〉

(AP)AP연합뉴스기사입력 2007-08-01 07:54  
/2007-08-01 07:10:58

지난 7월 30일, 오리 한 마리가 미국 오리건주 유진의 앨튼 베이커 공원의 한 인접도로를 따라 그야말로 오리걸음 산책을 해 차량통행을 지체시키고 있다. 이 오리는 운전자들에게 비켜 가기 충분한 공간을 허용치 않은채 이 도로를 따라 약 46m를 내려간뒤 공원으로 안전하게 되돌아갔다고

(AP=연합뉴스)(hcs).

## ▶ 찻잔 속에서 헤엄치는 '새끼 오리'

화제팝뉴스기사입력 2007-07-31 14:0

찻잔 속에서 헤엄 치는 '새끼 오리 한 쌍' 이 화제다.

28일 영국 데일리메일의 보도에 따르면, 솜털이 보송보송한 모습의 새끼 오리 두 마리는 거센 물결에 맞서 위기기 빠져 있던 중 카누를 즐기던 크리스 머레이에 의해 구조되었다.

머레이는 새끼 오리 두 마리를 영국 데본주에 위치한 농장으로 데리고 갔고, 정성껏 돌보고 있는 중.

부화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찻잔 속에 쏙 들어갈 만큼 작은 몸집을 가지고 있는 새끼 오리 두 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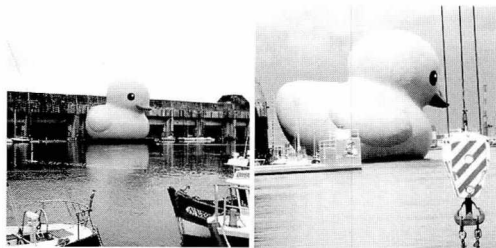


는 언론에 보도된 이후, 해외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소개되면서 네티즌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는 중.

찻잔 속에서 수영을 즐기는 오리들은 조만간 바다와 접한 인근 강가에 방생될 예정이라고 언론은 덧붙였다.

(사진: '찻잔 속의 오리' / 매일은선데이 보도 화면)  
김화영 기자 (저작권사 팝뉴스)

## ▶ 거대한 고무 오리



네덜란드 출신의 예술가 플로렌테인 호프만 (Florentijn Hofman)이 'Loire Estuary 2007'에서 선보인 작품 고무 오리(Rubber Duck).

작품명: 고무 오리(Rubber Duck)

연도 : 2007

위치 : 루아르강, 프랑스

규격 : 26 x 20 x 23미터

소재 : 공기주입형 고무 코팅 PVC, 판톤 (pontoon), 발전기

수평선 위의 노란색 물체가 천천히 강가로 다가온다. 거대한 노란 고무 오리가 접근하면, 사람들은

즐거워하며 오리를 바라본다. 관람객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는 오리에게 인사를 받는다. 고무 오리에게는 경계가 없다. 사람들을 차별하지도 않고 정치적인 함의도 가지고 있지 않다. 우호적이

며 물위를 떠다니는 고무 오리는 일종의 치료 도구로써 전세계의 긴장을 제한하고 완화시킨다. "Loire Estuary 2007"은 6월 1일 개막된 야외 현대 미술 전시회로, 낭트(Nantes)에서 생나제르 (Saint-Nazaire)까지 40마일에 이르는 루아르강가를 따라 세계 각국에서 온 30명의 예술가들의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다. 이 행사는 9월 1일까지 계속됐다.

